

“가난한 사람들에게 책임은 즐거움을”

문간방에 「두레방 주민도서실」 연 宋 美 淑씨

서울구로구 구로4동 구로시장 뒤편.

북적대는 시장통과 택시 한대가 겨우 다닐만큼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시작되는 주택가에는 손바닥만한 마당을 낀 낡은 집들이 비좁은듯 담을 잇대어 있다.

너무 답아 언뜻 놓치고 지나치기 쉬운 이 골목의

결혼 3년째로 14개월된 아들 建熙의 뒤치다꺼리에도 바쁜 宋씨가 이 주민 도서실을 연것은 지난90년 3월.

상업고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직장생활을 시작했던 宋씨는 뒤늦게 천주교신자가 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눈을 돌리게 됐다.

宋씨는 가난한 사람들이

장서 2천권...월 3천원으로 빌려보게

대문 하나에는 집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 대신 「두레방 주민도서실」 (☎4850)이라는 나무현판이 걸려있어 눈길을 끈다.

이집의 주인이자 두레방 도서실의 한명뿐인 사서이기도 한 宋美淑씨(33)는 매일 오후 2시면 문간방인 두레방도서실의 문을 열어 저녁 8시반까지 책을 빌려 오는 이웃들을 맞는다. 『월회비 3천원만 내면 여기 있는 책을 마음껏 빌려 볼 수 있는데 회원이 5백명쯤 돼요. 대부분 구로 2, 4, 6동에 사시는 이웃들인데 단골들 절반은 저같은 주부들이죠』

받는 소외중에서도 특히 문화적 소외를 극복하는 일을 돕고 싶어했다.

『마침 성당에서 구로동에 집을 마련해놓고 지역문화 활동을 할 사람을 찾는다는 소리를 듣고는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 와서 두레방을 열었지요』

3평 남짓한 두레방의 4면벽을 빼곡이 채운 책들은



두레방 도서실을 운영하는 宋美淑씨(가운데). 도서실과 함께 주부 글쓰기 교실도 마련했다.

모두 2천원.

매달 회원들이 내는 월회비로 신간 10권씩을 사서 보낼 때는 한푼이라도 더 싸게 사기 위해 청계천의 도매상가를 찾는다.

宋씨는 작년 8월 두레방에 주부글쓰기교실을 새로 마련했다.

『92년에 결혼해 저 자신이 주부가 되고 보니 주부들의

자기발전이란 문제가 실감나게 다가왔어요.그래서 책방 이미지에도 맞는 글쓰기 교실을 열기로 한거죠』

방이 좁아 선착순 10명으로 제한한 이 모임의 1기생들은 모두 구로동 일대에 사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주부들로 4개월간 공부했다. 2기생 10여명도 지난해 10월부터12월까지 글쓰기교실에서 만났다.

『주부끼리 모여 고부갈등 부부싸움 같은 생활사를 소재로 솔직한 글들을 쓰다 보니 나이차나 집안생활정도 차이같은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만큼 가까워 지더군요. 서로 삶의 지혜

도 나눠갖게 되고요. 올해도 주부글쓰기 모임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에요』

이제는 서로를「형」이라고 부르며 1주일에 한번쯤은 두레방에 몰려앉아 사는 애기를 나누게 된 1기생들은 최근「두레모임」이라는 회를 만들어 두레방운영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두레방이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 되려면 지금보다 아동용도서가 더 많이 확보돼야 하는데 월회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좋은 책들을 다 살 수가 없어요. 양서를 가진 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유일한 바람입니다』 (鄭恩玲)

